비상계엄 관련 軍 수뇌부·하급자 '엇갈린 증언'

육군총장 "인원 파악 지시 안해" vs 중령 "지시받아"
특전사령관 "나는 지시 안해" vs 여단장 "전화받아"
합참의장 "'외환 의혹' 유감…국민께 실망드려 사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수뇌부와 하급자들이 국회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내놨다.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김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에게 "12월4일 오전 2시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이 4일 오전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던 육군 소속 참모들을 버스에 태워 계엄상황실이 있던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호출한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자들 발언이 엇갈렸다.

박 총장은 "3시에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지시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육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당시 주요 상황 일지에는 '(4일) 03:00경,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고 적혔다.

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은 "사실대로 작성했느냐", "3시에 박안수 총장이 육본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여의도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말이 달랐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이 여단장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보안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고 이를 이후에 알았다"면서 본인이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여단장은 '곽 사령관이 직접 보안폰으로 전화하고 이상현 증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말했다.

계엄에 동원된 병력이 당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 때 헬기를 운용한 특전사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계엄 당시 조종사들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느냐는 윤건영(민주) 의원 질의에 "조종사들이 긴급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대화방을 왜 다음날 삭제했는가"라는 이어진 질의에 대답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국민 일반의 눈에서 볼 때 증거 인멸"이라며 "특전사 3공수여단 등 다른 부대에서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추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사태와 과거 군의 군사적 활동이 결부돼 '외환 유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반발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 노로바이러스 환자 한달새 4배 급증

전남보건환경硏 표본감시 결과…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남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급성설사환자의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12월 1주차 4.8%였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이달 1주차 18.4%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관련 집단 식중독 사례도 지속 보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장염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나 구토물,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된다.

주로 겨울철에 높은 검출률을 보이며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와 동일한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므로 바이러스 전파가 쉽게 이뤄진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수돗물의 염소 농도와 60도 온도에서도 감염력을 유지할 정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해 오염된 물에서 제거가 어렵고 인체 내 장기적인 면역이 어려워 재감염이 빈번하다.

박숙 미생물과장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열하거나 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패류 등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국가적 아픔 치유…새 희망 향해 전진"

金지사, 새해 업무보고 "공세적 자세 업무 추진"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새해 업무보고회를 열어 "올해는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고 새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선 2025년 주요 현안과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전남 발전을 위한 구체적 미래 비전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일자리·경제 ▲안전·건설·소방 ▲관광·문화·환경 ▲농수산 ▲인구·인재·복지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분야별 역점 시책 보고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도 함께 참석해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영록 지사는 보고회를 마치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부처 설득 등 공세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역점 시책과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설 대비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광주시는 15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인 ▲분리배출 도안 미표시 ▲적정 도안 사용 ▲최소크기(가로·세로 8㎜) 위반 ▲실질 재질과 표기 재질 불일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인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제주항공 참사 성금 10억 기탁

전국재해구호협회 전달…"피해자·유가족 삶 안정 지원"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한 이번 성금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복구와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들이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며 공항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희생됐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임동 더현대 쇼핑타운 인접도로변 최고요지
2층건물 대지144㎡ 급매4억3,600
식당, 카페, 편의점 최적
임동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선점하세요)
임동 5거리 2,300세대 아파트대로변
더현대쇼핑타운 생활권(500여미터)
임대가격으로 매수가능 시세50%급처분
10층 431.48㎡ 급매가4억3,000
승강기1,주차40대
학원,병의원,하늘정원식당등 최적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CMYK